

대화와 평화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언론인이면서 사상가였던 리영희 선생님의 마지막 저서의 제목이 '대화'였다. 700여 페이지 분량의 대작을 임현영 평론가와 대화 내용으로 담았다.

자서전 혹은 회고록은 대개 일인칭으로 서술하는데 대화 형식으로 한 것은 '개인사적 사실 내용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질문자와의 비판적 토론의 방법으로 다루고자 했다'고 이영희 선생은 말했다. 역시 최고 지성인의 비범한 생각이었다.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가 있다. 잔나비 최정원이 작사 작곡을 하고 더 자두가 부른 노래인데 연애를 하는 중에 생긴 서로의 오해의 심정을 잘 담은 가사가 감칠 나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누구나 겪었을 이야기다. 대화가 필요해는 개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되기도 했다. 필자도 전남일보에 장기간 연재했던 '고전담론'을 고전의 인물들과 시대를 초월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서술한

것도 고전을 현대인의 생각에 가깝게 소개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덴마크에 '대화하는 교육공동체'라는 것이 있다. 교육사상가 그룬트비는 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모국어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교육을 만들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교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 폴케호이스콜레라는 자유학교의 교육은 말과 대화, 토론이 중심이다. 이 교육운동은 덴마크를 창의와 평화와 있는 행복사회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아마 광장에서 대화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후 대화는 역사상 가장 큰 화두였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더 나아가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도 껍질하리만치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다.

세대의 격차는 스마트폰이 아니면 대화가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대화마저 축약된 언어, 이모지 등으로 서로 알기 어려운 신호로 소통되고 있다. 가족들과 직장인들도 만나서 대화하기보다 특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런 방식이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

지만 불가피하게 사람의 의사전달을 굴절시키고 왜곡시키기도 한다. 세대차가 크면 대화가 아니라 암호가 되기조차 한다.

의료대란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밀어붙이기 전에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독선의 결과는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갔다.

광주군·민간공항 통합이전 문제도 대화가 개방되어야 한다. 대화를 닫고 회피하기보다 대화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가부여부조차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주 일어나는 노사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화를 거부한 전쟁범죄다.

최근 한 정치인이 광주 평화토론회에서 이제 남북은 통일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고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발표해 논란이다. 문제를 진지한 토론으로 제기하기보다 선언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은 옳은 것이 아니다. 대화는 비판적 토론과정으로 대화의 기술도 알아야 한다. 대화하는 공동체가 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지금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하다.

社說

천대받고 망가진 한글, 모두가 되살려야

활성화 위한 개인 노력 필요해

우리의 말과 글인 한글이 천대받고 망가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적불명의 외래어가 전국을 뒤덮고, 언론부터 대중가요까지 각종 외국어로 표기된 제작물도 넘쳐나고 있어서다. 무관심으로 사라져가는 '귀한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자긍심이 안타깝다. 지금의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온 언론으로서도 반성해야 할 일이다.

9일 한글날을 맞아 전남일보가 광주 시내 일대를 둘러본 결과 상당수 식당과 카페, 액세서리, 옷 가게 등 상점 간판에 한글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가게 앞에 설치된 홍보 입간판과 문에 부착된 안내문마저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도배된 곳도 쉽게 눈에 띄었다. 어떤 종류의 영업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곳도 많았다. 아파트 이름부터 일본식 음식점이나 동남아 음식점, 유럽 풍 카페부터 대중가요의 노랫말과 언론 등에서도 외래어가 넘쳐났다. 노인과 어린이 등 외국·외래어가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새로운 장벽이다.

1446년 반포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언어'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면서 긍지이기도 하다. 실제 한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6000여 종의 언어 가운데 '만든 사람과, 만든 동기, 만든 원리'가 완벽한 유일한 언어다. 한글로 표현 할 수 없는 글자가 없을 만큼 효용성도 뛰어나다. 이런 장점을 인정해 유네스코는 지난 1997년 훈민정음을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세종대왕상을 제정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의 말과 글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다. 578돌을 맞는 한글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한글에 대해 자부심을 갖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관계망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줄임말과 외래어, 국적불명의 신조어 등을 줄이는 것이다. 한글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친근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힘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철회되어야 할 신재생 에너지 허가제한

전남, 투자철회 등 타격 우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2031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사업허가를 제한하면서 관련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철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불리는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 대책으로 신규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호남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는 것

은 지역 홀대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규 재생에너지사업 전면 불허 정책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말살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달부터 7년 가까이 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는 산자부의 방침을 내놨다. 전체 변전소의 88%가 호남과 제주에 집중되면서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메카'를 꿈꾸는 지역 내 경제적 피해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남은 활발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과 데이터센터를 적극 유치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내 우위자산을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신규발전 사업허가를 제한할게 아니라 충분한 전력 계통 연결과 자체적으로 전력소비가 이뤄지도록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소멸위기에 빠진 전남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절실할 때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8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터바인 홀에서 설치작가 이 미래의 '현대 커미션: 미래' 전시회가 열려 한 방문객이 작품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이 전시는 현대자동차와 테이트 미술관이 장기 후원의 일환으로 매년 작가 한 명을 선정해 열린다. 한국 작가가 이곳에서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작품은 내년 3월 16일까지 공개된다.

AP/뉴시스

서석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던 더위가 끝나고 드디어 찬바람이 얼굴에 닿기 시작했다. 가을보다는 겨울에 가까운 추위가 느껴질 정도다.

쌀쌀한 날씨에 옷깃을 여미기 시작할 이맘때쯤이면 꼭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 우리는 헤어졌지요"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발매된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다.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또래 대부분은 할로윈을 떠올릴 테지만 어쩐지 가을이 되면 이 노래부터 떠오른다.

하지만 이번 가을은 어느 때보다도 늦은 감이 있었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늦더위가 지속됐고, 9월 첫 주까지도 온열질환자가 83명 발생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길이를 재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계절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 3개월 단위로 구분됐다.

과거 여름 평균 일수는 1년 중 98일이었고 최근 10년에는 127일로 늘어났다. 여름 시작일부터 종료일도 과거엔 6월 11일~9월 16일이다가 최근 10년에는 5월 25일~9월



28일로 더 길어졌다. 이러한 기후 변화를 고려해 계절별 구분을 우리가 현재 겪는 계절의 길이와 맞추려는 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계절 구분 변화는 우리나라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반도는 점점 봄 시작 시점이 빨라지고 여름은 길어지며 겨울은 짧아지고 있다. 2050년이 되면 현재 97일 안팎인 여름철이 117~131일까지 늘어나고, 21세기 말인 2100년쯤엔 여름철이 129~169일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반면 겨울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가까운 미래에 정말 가을이라는 계절을 잃게 된다면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서늘한 밤공기를 즐기며 했던 산책도 없어진다.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 제목처럼 노래만으로도 추억할 수 있는 계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 이상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부터 쓰레기 줄이기, 지속가능한 소비와 농업까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도 기후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천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의 남은 가을들이 '잊혀진 계절'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본다.

취재2부 김은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